

2020 정기 주총

권봉석·배두용 체제 전환 경영 안정 ↑, 신사업 추가



권봉석, 올해 첫 최고경영자 자리 올라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본격화

LG전자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사업 전략을 명문화하며 성장에 고삐를 조였다.

LG전자는 26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제18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LG전자는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개정, 이사 선임 등 안건을 별다른 반대 없이 의결했다.

LG전자는 권봉석 사장과 배두용 부사장을 이번 주총을 통해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경영 안정성을 확고히했다. 권 사장은 올해 처음 LG전자 최고 경영자로 올라섰으며, 앞으로 사내이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백용호 사외이사도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이사회는 권봉석 사장과 배두용 부사장 2인 사내이사 체제로, 권영수 LG 부회장이 기타 비상무이사로 참여하는 형태가 됐다. 사외 이사로는 백용호 교수와 함께 최준근 전 한국휴렛팩커드 대표이사, 김대형 전 GE 플라스틱 아시아퍼시픽 CFO, 이상구 서울대 교수로 구성된다.



권봉석 사장 CFO 배두용 부사장

특히 LG전자는 정관을 수정하고 신사업 추진 의지를 본격화했다. 회사 목적사항에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추가한 것. 광파오븐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식품과 세제 등 일반제품을 LG 생규 앱을 통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형태의 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주주 친화 정책도 이어간다. 1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750원, 우선주 8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등에 투자를 지속하면서 TV 시청 데이터와 콘텐츠 기반 광고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김준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전대미문 위기, 극복 최선”



신규사업 안정적 운영 책임자 평가
김종훈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통과



26일 서울 서린동 소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진행된 SK이노베이션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 번 극복 의지를 내비쳤다.

SK이노베이션은 26일 오전 서울 서린동 소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및 주요사업 상황 악화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기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1조269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주요 제품의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회사 설립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온 차별화된 DNA를 갖고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에서는 김준 사내이사, 유정준 기타 비상무이사 및 김종훈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원

안대로 통과됐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 내 인사위원회는 김준 총괄사장을 사내이사에 재선임하는 안건과 관련,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배터리·소재사업 등 신규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기존 사업 가치 극대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SK이노베이션을 다시 도약시킬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종훈 사외이사는 외교·통상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사외이사에 재선임됐고,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또한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보를 경영철학에 반영한 개정 SKMS와 사업목적 신설 등 내용을 반영한 정관 일부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박정호 “코로나19는 IMF급 위기… 자회사 IPO 연기”

(SK텔레콤 사장)

(SK브로드밴드)



박정호 사장이 SK텔레콤 본사 사옥 4층 수펙스홀에서 주주들에게 경영성과, 사업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이통사 최초 온라인으로 진행
“실물 금융경제 예정보다 차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 IMF 위기와 비교되는 중대한 상황이 예견됩니다. 올해로 계획됐던 자회사 기업공개(IPO)는 1년 정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진행된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주총 현장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자회사 IPO

일정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사장은 현장에서 SK브로드밴드의 IPO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도시바 메모리 투자도 올해 상반기 IPO를 계획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보겠지만 실물 금융 경제에서 예정보다 더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해외 출국자가 줄어들며 회사 로밍 사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보안 사업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보안 상품을 해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커머스 사업도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활 필수품 증가에만 그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올해 SK텔레콤은 이통사 최초로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어 시간적·거리적 제약 조건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들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다. 온라인으로는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상황에 대한 질의가 접수됐다. 이에 박정호 사장은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통신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사업 구조 외에 반도체나 미디어, 보안, 커머스, 광고 등 성장세가 주식 가치에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며 “듀얼 OS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해 지배구조개편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첫 날 1만대... '올 뉴 아반떼' 흥행 신기록

6세대 사전계약 보다 9배 많아
코로나19에 소비 위축 속 선전

만대를 돌파했다. 1세대 엘란트라부터 이번 7세대까지 역대 아반떼 중 최대 기록이다.

현대자동차의 스테디셀러 '올 뉴 아반떼(사진)'가 사전계약 시작 하루 만에 1

현대차는 25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들어간 '올 뉴 아반떼'의 첫 날 계약대수가 1만58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아반떼 한달 평균 판매대수 5175대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세대 아반떼 첫날 사전계약 대수 1149대의 약 9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전세계적인 SUV 열풍으로 인해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산 준중형 세단 수요가 무려 32%나 감소한 시장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달성한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실제로 '올 뉴 아반떼'는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 테마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깎아낸 보석처럼 입체적으로 조형미를 살린 외관 디자인과 운전자 중심 구조로 설계된 내장 디자인이 어우러져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여기에 탑승

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세심히 배려하는 최첨단 안전장치를 상당 부분 기본 적용한 것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국내 준중형 세단 최초 적용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전방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제동한다.

또 차로 변경 시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차량 제어를 돕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진 주차·출차 시 후방 장애물 인식 및 제동을 돕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 등을 탑재해 고객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모비스

美서 '루프에어백' 주목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루프에어백의 안전성 효과가 주목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모비스의 루프에어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NHTSA는 지난 1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주관하는 정부, 산학 연계 기술 세미나에서 루프에어백에 대한 평가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현대모비스의 루프에어백은 차량 전복 사고 시,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개돼 0.08초만에 루프면 전체를 덮어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다.

/양성운 기자

